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7월 7일(금)

(음력 윤 5월 14일)

Пятница

7 июля 2017 г.

№ 26(11674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학업에서 특별 우수성에 대한 메달 수여식

지난 30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인형극장에서 사할린·쿠릴 학교 우수 졸업생들을 위한 기념식이 있었다. 올해 사할린주에서만 학업에서 대단한 우수성을 보여준 사할린 및 쿠릴 일반학교 졸업생 50명에게 <학업에서 특별한 우수성>이란 메달(상패)과 함께 상장과 장려금 57500루블을 수여했다.

주정부 웨라 셰르비나 수상은 기념사에서 이날 졸업생들에게 학업에서의 우수한 성과와 활동적인 삶의 자세에 감사를 표하고 이러한 졸업생들을 배출시킨 학부모와 교육자들에게도 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졸업생들에게는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높은 성과를 이루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메달을 받은 졸업생들은 주·시의 경시대회, 콩쿠르, 축제와 학술회, 러시아 페스티벌, 지역외교, 예술부문 등의 수상자들로 이들은 국가졸업고시에서도 단연 최우수성을 확증했다. 이번에 상패를 유즈노사할린스크(17명), 홈스크(8명), 코르사코브(6명), 오하(4명), 포로나이스크(4명)를 비롯해 총 10개 구역의 학생들이 받았다.

(취재: 이에식기자)

주지사, 돌린스구역 방문

지난 5일(수)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가 돌린스크구역을 방문했다. 주지사는 이날 법무부 기관 직원, 교사직과 의사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정부 지원으로 준공된 임대아파트 입주식에 참여하고 입주자들에게 열쇠를 전달했다. 에너지절감 기술로 건축된 주택은 21세대가 입주 가능한 3층 건물로 임대료는 시장가보다 50% 저렴하다. 입주자들은 6개월 이후에 임대가 아닌 대출을 통한 구매도 가능하다.

코제마코 지사는 구역 공공경리시설도 점검하고 돌린스크-비코브 구간 도로(6.1 킬로미터) 아스팔트 포장 작업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 도로는 처음 아스팔트로 포장하는데다가 높은 강도와 영구성을 고려해 최신 기술로 포장하고 있다. 공사를 맡은 회사 측은 추위가 오기 전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포장작업을 끝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주지사는 비코브 현지 학교에서 부락 주민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주민들은 주요한 문제로 열악한 도로 사정에 대해 언급하고 문화회관의 부재, 의료서비스와 낡은 주택 관리, 쓰레기 처리 등에 관한 불만과 문제점, 목탄 제조를 위해 불법 벌목작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자연에 대해서도 불만들을 표명했다. 주지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주민들의 모든 불만을 듣고 지역과 주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겠다고 표명하고 주민과의 만남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산출된 문제가 작업의 계획을 수정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주지사는 당장 올해 마을에 문화회관 공사에 착수하고 내년에는 학교 외관 수리와 이웃 구역 우글레스 워드크에는 양로원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정부 자료에서)

사할린주 두마의원 후보 명단 제출 7월 9일 마감

7월 9일 18시 사할린주 선거위원회가 제7기 사할린주 두마의원 선거 후보자 서류 접수를 마무리한다고 공시했다. 7월 3일 정보에 따르면 출마할 후보자 명단은 8개 선거연합 정당들이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각 정당 후보들의 출마는 6월 10일부터 시작되었는데 7월 3일 현재 <러시아 공산당>의 정당만 후보 명단 검증을 위한 문서가 사할린주 선거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지난 월요일에 있는 주선거위원회 회의에서 워토리야 체르카소와 사할린주 선거위원장은 "9월 10일은 사할린주 두마의원 선거 외에도 포로나이스크, 코르사코브, 토마리, 세웨로쿠릴스크 구역의회 대의원 선거도 치러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선거 과정에 모든 후보자들의 활동이 향상되길 기대하고 서류 등록일이 다가오니 9월 18시까지 각 정당들은 후보자 등록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원 후보 명단을 제출하는 정당들은 <러시아의 공산당원들>당의 주지부, <야블로코>당의 지역지부, 러시아연방공산당 지부, 자유민주당 지부, <러시아 애국자>당 지부, <로지나>전국의 당, <에지나야 러시아>당의 지부, <공산당과 사회 정의>당 지부다.

사할린주 두마의원 선거는 혼합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정당에 따라 의원 14명은 비례대표 선거로, 14명은 선거구에서 다수대표로 1석을 선거한다.

단신

러시아와 벨라루시 대통령, 라즈돌노예 농장 높이 평가

지난 6월 29-30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4회 러시아-벨라루시 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양국 대통령은 사할린주 코르사코브 구역의 라즈돌노예 마을에서 자리잡은 신 농축산단지를 높이 평가했다. 최근에 사할린과 벨라루시는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양국의 상호유익 프로젝트로 신 농축산업도시로 변모하는 사할린 도시들의 지속적 성장을 언급했고,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식품을 수입하던 사할린에서 농축산식품을 생산, 보급하는 사할린으로의 변모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곳에 축산종합단지과 농업단지는 벨라루시의 기술과 전문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건설한다. 또한 과수원을 만들기 위해 벨라루시아에서 들여온 배, 사과 모종을 심어놓았다.

현재 양국의 지도층과 사할린주정부는 공동 농축산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사할린주 인권문제담당대표로 세르게이 세도브 재선

지난 6일(목) 사할린주 두마회의에서 사할린주 인권문제담당대표로 세르게이 세도브가 재선에 성공했다. 후보 추천에서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세도브를 밀었고, 주사회원위원장은 블라디미르 이콘니코브를 추천했다.

회의에서 세르게이 세도브가 10표 블라디미르 이콘니코브는 4표를 얻었다. 선거결과 발표 후 세도브는 <주민들의 의견과 공의를 대변하는 목소리>로서 사할린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서약했다. 작년에 인권문제담당대표는 민원신고에서 서면으로 364건, 구두로 232건이 접수했고 직접 대면으로 316명의 불편신고를 접수했다.

〈그린 팔라스〉, 비즈니스쇼핑센터 준공

지난 30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그린 팔라스 미라 300>주상복합단지 내에 비즈니스 쇼핑센터 준공식이 있었다.

지난해 9월 <그린 팔라스 미라 300>주상복합단지 첫 준공식을 치렀는데 이번에 비즈니스 쇼핑센터가 완공되어 준공식에는 프로젝트 투자자, 건설업체, 정부 관계자, 분양자 등이 참석했다.

<사흐인스트로이>회사 콘스탄틴 수호레브리크 대표, <그린 팔라스 그룹> 박용광 회장을 비롯해 <그린 팔라스 미라 300> 투자자와 건설업체 대표들이 우선 오픈 테이프를 컷팅했다. 모두 지하 1층을 포함해 5층의 비즈니스 쇼핑센터를 돌아본 후 공식적으로 준공식을 개최했다.

손님들을 환영한 <그린 팔라스 그룹> 박용광 대표와 <사흐인스트로이>회사 콘스탄틴 수호레브리크 대표는 <그린 팔라스 그룹>은 주로 주택을 건설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비즈니스쇼핑센터를 건축하게 되어 앞으로 이 센터를 잘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축사는 시공을 맡은 <코루스스트로이>회사 대표이사 마트웨예브 안드레이와 꾸준히 그린팔라스 프로젝트에 투자한 일본 측 대표가 했다.

권운호 <사흐인스트로이>회사 부사장에 따르면 센터의 지하층에는 슈퍼마켓이 들어서게 되어 주상복합단지 입주자들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바로 슈퍼마켓으로 들어가도록 했고 1, 2 층은 상가 매점과 부티크들이 들어서며 3층은 푸드

코트가 들어서고 4층에는 사무실과 <박대감> 한식 레스토랑 2호점이 개점될 예정이라고 했다. 공사는 2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현재는 비즈니스 쇼핑센터의 98%가 이미 분양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과 식당이 들어설 쇼핑센터는 11월쯤에 개장할 전망이다.

한편 <그린 팔라스>그룹은 편리한 고급 아파트 건축사업으로 사할린에 진출한 지 11년째 된다. 그 동안 예멜리야노와 거리엔 첫 <그린 팔라스> 주상복합을, 콤무니스찌체스키 프로젝트에는 제2 <그린 팔라스> 단지를 준공했고 현재는 <그린 팔라스 미라 300>주상복합단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한국, 일본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는 편리한 고급 주상복합이 부족한 상태로 이번 준공식은 도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취재: 글/배순진, 사진/이예식)



이 모 저 모

사할린선수, 크림에서 진행되는 경기에서 금메달 11 개를 획득

제6회 공화국 오픈복싱경기 <안녕, 여름!>이 크림 공화국 위찌노에서 열렸다. 사할린주 청소년 32명의 혼성팀이 이번 경기에 대표로 출전했다.

경기에는 러시아연방 28개 도시를 대표하는 선수 118명이 참가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사할린 선수들은 11명이 1위를, 2위는 12명이 차지했다.

"선수들은 이 경기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잘 펼쳐 보였습니다. 강력한 상대와 붙을 때도 우리 선수들은 수준 높은 역량을 보여주었고 현재 선수들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가을에 이들이 또다시 챔피언이란 걸 확증해야 하기 때문이죠."라고 사할린주대표팀 코치 인노켄찌 포타포브는 경기에 임했던 팀에 대해 이같은 결과를 보고했다.

사할린주 권투연합회는 이번 경기를 온라인으로 생방송 했다. 이를 응원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생방송 때 실시간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권투연합 홍보실이 전했다.

11 золотых медалей завоевали сахалинцы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 Крыму

VI открытый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турнир по боксу "Здравствуй, лето" прошёл в Витино Республики Крым. Сборну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данном соревновании представили 32 юных спортсмена.

Всего в турнир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18 боксеров из 28 городов РФ.

По итогам напряженных поединков 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завоевали 11 первых и 12 вторых мест.

Итоги выступления команды на турнире подвел старший тренер сборно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нокентий Потапов:

— Ребята отлично проявили себя на дан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Хотя соперники были очень сильными, наши ребята всё равно показали себя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А сейчас ребятам нужно отдохнуть, ведь уже этой осенью им предстоит снова подтверждать свои звания чемпионов.

Федерацией бокс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одилась онлайн-трансляция боёв. Это позволило всем желающим поболеть за своих спортсменов на соревнова-

ниях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федерации.

<자연에서 배우자> 지역향토유람대회에, 60 명 참가

지역 향토유람대회 <자연에서 배우자>는 유람을 통해 야생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할린주 보충교육 교육자들과 이들이 운영하는 아동 그룹들을 위한 다양한 관광 방식 및 지역교육에 대한 현장조사 프로그램이다.

<부메랑>클럽과 <로스벤치-사할린모르벨체가스> 회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 프로그램은 5일간 말로예와와이스코예 호숫가에서 진행되어 코르사코브, 솔롭요브카, 돌린스크, 홈스크 및 아도티모위의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들의 그룹들, 그리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청소년관광센터 그룹이 참가한 가운데 총 참가자 수는 60여 명이었다.

주최 측 대회의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교육방식으로서 자연생태환경 유람을 홍보하고 자연의 야생적 조건 속에 관광 및 지역적인 행사 조직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있다. <부메랑> 회원들은 지방 교육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연유람현장 및 지역지리 수업을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반대로 참가 교사들은 지역 유람에서 하는 게임과 수업을 실시했다. 이러한 대회는 아이들에게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아동 프로그램으로는 암벽타기와 밧줄로 건너가기, 웨트보트와 카야크(작은 배들) 운행, 지역과 관련된 상호작용 수업 등이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을 위한 모든 자연유람 프로그램을 익힌 후 참가자들은 각 단계에서 자신의 팀을 위해 승부를 다투는 여러 경주가 진행되었다. 여러 경주 중 서로를 열렬히 응원하는 팀 릴레이도 있었다.

7월에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야생 유람대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12세이상 청소년들의 참가가 가능하고 프로그램은 7월 12일-1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등록을 하기 위해 8-924-186-86-61 또는 8-914-759-87-42로 연락을 요한다고 <부메랑>측은 전했다.

60 участников собрал на Сахалине туристско-краеведческий слёт "Учимся на природе"

Туристско-краеведческий слёт "Учимся на природе"

— это полевая обзор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 различным видам туризма и краеведению для педагогов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их детских групп.

В пятидневной программе,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на берегу Малого Вавайского озер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группы из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рсакова, Соловьёвки, Долинска, Холмска и Адо-Тымово, а также группа из центра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туризм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сего было около 60 участников.

Слёт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клубом "Бумеранг" совместно с ООО "РН-Сахалинморнефтегаз".

Целью слёт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ставили пропаганду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туризма как эффективной формы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и молодёжи, а также обмен опытом по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стских и краевед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полевых условиях.

Бумеранговцы показали педагогам из районов и волонтерам, как они организуют полевые занятия по туризму и краеведению, а педагоги-участник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ровели походные игры и занят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лёт был полезен не только детям, но и взрослым.

В детской программе были занятия на скалодроме и верёвочных переправах, занятия по управлению швертботами и каяками, интерактивные занятия по краеведению и др. После освоения всей туристской программы для ребят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мультитонка, в которой участники защищали честь своих команд на различных этапах. Также мультитонка включала командную эстафету, в которой ребята громко поддерживали друг друга.

В июле будет проведён ещё один полевой слёт, на который ещё можно записаться. Дети старше 12 лет могу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грамме в период с 12 по 18 июля. Для записи звоните по телефонам 8-924-186-86-61 и 8-914-759-87-42, сообщает "Бумеранг".

<문화적 수도> 기획의 일환으로 유즈노 사할린스크시의 미스터와 미스를 선발

7월 7일. 금요일 <문화적 수도>시 창작기획의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미스터와 미스>콩쿠르의 첫 시험단계가 시작된다. 총 3단계에서 최고점을 가장 많이 받은 참가자가 이 명예의 칭호를 받게되고 9월 9일에 펼쳐질 '도시의 날' 행사를 개막할 권리가 주어진다.

행사가 지향하는 바는 첫째로 주민들의 사회적 활동을 널리 알리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회문화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역점을 두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조성하고 구현하는 데에 있다.

(8면에 계속)

애니깽 · 고려인 후손 60여명 모국서 직업연수 받는다!

재외동포재단, 고려인 및 멕시코 · 쿠바 한인 60여명 초청 직업연수 순차적 개최

애니깽 후손과 차세대 고려인 60여명이 모국을 방문해 3개월 간 직업연수를 받는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이하 재단)은 차세대 한인들의 안정적 사회 진출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17 러시아.CIS 고려인 초청 직업연수>와 <2017 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우선, 35세 미만의 러시아 · CIS 지역 차세대 고려인 44명을 초청하는 <2017 러시아.CIS 고려인 초청 직업연수>는 7월 3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오는 9월 22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 3일 오후 인천재능대학교에서 열린 개회식은 참가자들과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김영근 사업이사,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공교육은 한식요리와 헤어 및 메이크업 등 3개 분과로 열린다. 한식요리는 기초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수준별 맞춤 교육이 진행되고, 뷰티케어는 심화과정을 통해 네일케어와 스킨케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고려인 직업 연수 참가자 대다수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크고,

특히 한식 요리 분과 참가자들은 향후 한식 레스토랑 개업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성장이 또 다른 한류 확산의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이 주최하고 오산대에서 주관하는 <2017 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는 오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된다. 멕시코와 쿠바에서 각각 7명과 5명의 한인후손이 참가해 헤어와 네일아트 기초 및 심화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다.

특히, 멕시코 · 쿠바 초청 직업연수에 독립유공자의 후손도 참가해 눈길을 끈다. 쿠바에서 온 다니엘라 호 플레이타(Daniela Jo Fleita)는 대한민국상해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호근덕 선생의 증손녀로, 올해 4월 김재기 전남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호근덕 선생의 후손들을 찾으면서 이번 연수에까지 참가하게 됐다.

－ 호근덕 선생은 1905년 멕시코 메리다 애네칸 농장으로 노동이민을 갔다가 1921년 다시 쿠바 마탄자스로 재이주한 대표적인 한인 디아스포라이다.

직업연수 참가자들은 전공 수업 이외에도 ▲한국어 수업(한국어 기초 및 전공 분야 한국어

회화) ▲산업체 현장 체험 ▲한국문화 체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활동에 참가한다. 또한 연수 기간 내에 국내 체류 동포들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참가자들이 비슷한 연령대인 한국 대학생들과 한국생활 적응과 앞으로의 진로 등의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한편, <2017 멕시코.쿠바 초청 직업연수>의 개회식은 5일 오전 11시 오산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외교부 중남미국 김학재 심의관의 축사,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철기 이사장은 “한식 요리 및 한국의 우수한 뷰티케어 기술을 전수하는 이번 직업연수가 참가자들이 한식 및 K-뷰티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직업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 및 한국의 문화 체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 후손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여태껏 무국적자로 살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7년을 병상에 누워 계셨다. 그때 유언처럼 자주 하신 말씀이 '소련 국적 받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그 말씀 지키려고 우리는 아직까지 무국적자로 살아가고 있다."

아버지 김말수 씨도 평생 무국적자로 살다 가셨나?

－ "우리 부모는 1957년인가에 북한 국적을 받았다가 70년에 북한 국적을 포기했다. 그 이후로는 줄곧 무국적자로 살았고, 자연히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다 1999년 이후부터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기가 좀 쉬워지면서 형제 중 일부는 그때 러시아 국적을 얻었다."

무국적자로 살면 불이익이 많지 않나?

－ "일례로 가까운 하바롭스크에 갈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나가 일을 하거나 공부하기가 어렵다. 나도 한 번은 공항 옆에 있는 신발공장에 다니려고 한 적이 있는데, 거주지 바깥이라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 무국적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러시아인보다 월급이 적었다. 나만 해도 일 잘한다고 사진도 찍고 했으면서 메달(훈장) 줄 때는 사장이 무국적자라고 탈락시키곤 했다. 젊은 시절에 받은 월급이 적었기 때문에 현재 받는 연금도 적고, 그래서 사는 게 어렵다. 은행에서 대출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게다가 내 나이가 환갑인데 이날까지 투표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다."

오빠 김덕일 씨가 한국으로 영주귀국할 때 심정이 어땠나?

－ "오빠는 1942년 출생이라 다행히 조건에 맞았다. 반면에 나와 또 다른 오빠와 동생은 귀국 대상이 아니다. 우리 셋 다 고향인 한국에 가려고 여태 무국적자로 살았는데, 귀국도 못하고 피해자 지원도 못 받는다니 그게 너무 아쉽다."

평생을 사할린에서 살았는데, 굳이 한국으로 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거기가 내 조국이고 고향이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오빠도 거기 있고, 무엇보다 여기서는 살기가 너무 바쁘다(힘들다)."

일본, 소련, 북한 사이에서 길을 잃은 한인의 국적

김명자 씨의 말에서도 얼핏 드러나듯, 사할린 한인 중에는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가 포기하고 무국적자로 돌아간 경우가 많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해방 이후 사할린을 둘러싸고 진행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1945년 8월 9일, 사할린에서 벌어진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남사할린을 점령한 소련군은 곧 섬을 봉쇄하고 8월 23일부터 일본인의 출입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일제의 징용으로 사할린에 끌려온 한인들은 해방을 맞이했지만, 독립국가의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잃은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립에 따른 냉전체제는 점차 심화되었고, 급기야 소련이 북한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자 남한 출신 한인들의 불안감은 고조되었다. 게다가 당시 소련 국적법은 스스로 국적을 증명하지 않는 외국인을 전부 '무국적자'로 처리했기에, 한인도 무국적자로 분류되었다.

한편 일본은 1952년 미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조선인의 일본 국적을 박탈해버렸다. 사할린처럼 점령국이 바뀌는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국적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관행인데, 일본은 기존의 관행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적을 빼앗아버린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일본은 또한 식민지 영토에 관한 조약을 교묘히 해석하여 해방된 조선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고향이 남한에 있는 사할린 한인들은 스스로 운명(국적)을 선택할 결정권을 빼앗긴 채, 단지 지배자만 소련으로 바뀐 사할린 땅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길을 찾아야 했다.

한인 김복곤 씨에 의하면, 1955년을 전후로 사할린 한인에게 '임시신분증(무국적자 신분증)'이 발급되었고 일본식 이름에서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소련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한인은 고향에 갈 수 있다고 여겼고, 또한 가야만 한다는 신념이 워낙 강했기에 무국적을 선택한 예가 많았다. 가뜩이나 미소 냉전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련 국적까지 받아버리면 한국에 영영 못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 게 그 이유였다. (계속)

"모국서 여름방학 함께 보내요!" 재외동포재단, 여름방학 맞아 모국 초청 행사 진행

본격적인 여름 휴가와 방학이 시작되는 7~8월,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분주한 가운데 반대로 대한민국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모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해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면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재외동포들이 그들이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이하 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재외동포 차세대 및 재외 한국어 교사들의 민족 정체성 강화를 취지로 한 다양한 모국 방문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가장 대표적인 모국 방문 사업은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 모국 연수>다. 올해로 20회째 개최되는 이 연수는 한국어 및 모국 이해 교육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재외동포 청소년 450여 명이 참가하는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 연수>는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을 방문해 대회 성공을 기원하고, 전국 9개 지역과 서울에서 농촌 및 도시 체험과 더불어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해 대회를 홍보할 예정이다.

8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에는 200여 명의 재외동포 대학생 및 예비대학생이 참가해 한국 문화 체험의 시간을 갖는다. 청소년 교류사업 20주년 기념 프로그램으로 홈커밍 선배들과의 토크콘서트, 자원봉사활동, 토론회 등도 진행될 계획이다.

한국어 교육이 단절된 환경에서 성장한 재외동포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일본과 러시아 · CIS 지역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는 해당 지역의 재외동포 자녀들에게 모국어 학습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한국어 집중 교육과 함께 다양한 한국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1차 캠프는 재일동포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2차 캠프는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9박 10

일간 모국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재단에서는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들을 이끌어 나갈 교사들의 역량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자 간 상호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한글학교 교사 및 교장 초청 연수>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글학교 교사 및 교장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한국어 교수법 강의 및 참여형 프로젝트 수행, 한국 역사 문화 프로그램 학습 등 직무 교육과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는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교장 연수는 8월 21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고려인 동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CIS 한국어교사 초청연수>는 해당 지역 내 턱없이 부족한 차세대 민족교육자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등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맞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CIS 한국어교사 초청연수는 7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그 밖에 차세대 한인 후손들의 거주국 내 안정적인 취업 및 사회 진출을 돕는 직업 연수도 마련됐다. 7월 3일부터 3개월 간 인천재능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러시아 · CIS 고려인 초청 직업연수>에는 44명의 차세대 고려인이 참가해 한식 요리 및 한국의 우수 뷰티케어 기술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뒤이어 7월 5일부터는 <멕시코 · 쿠바 한인 후손 초청 직업연수>가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오산대학교에서 3개월 간 진행된다.

주철기 이사장은 "미래 재외동포사회의 주역인 차세대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초청 연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재외동포재단은 앞으로도 모국 이해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ИСТОРИЯ КОРЕИ



.Помимо традиционной японской угрозы в Корею была сильна угроза с севера – из Маньчжурии. Маньчжурия –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момент это одна из провинций Китая, самая северо-восточна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граничащая с Приморским краем России и Кореей. В Средние века она была населена различными кочевыми племенами, которые враждовали между собой, а также регулярно совершали грабительские набеги на цивилизованные страны-соседи – Корею и Китай. Самым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и агрессивными в конце XVI в. были племена чжурчженей (которых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называли маньчжурами). Объединившись, эти племена стали представлять еще большую угрозу для соседей. Поскольку роль маньчжуров в истории Китая и Кореи велика, давайте немного расскажем об их истории.

Объединение маньчжуров произошло под властью одного из их вождей по имени Нурхацци. В конце XVI в. Нурхацци объединил под своей властью множество чжурчженских и монгольских аймаков (родов, владений) и в 1616 г. объявил себя императором новой империи, названной «Поздняя Цзинь» – в знак продолжения традиций империи Цзинь XII–XIII веков. Затем был завоёван принадлежавший Минской империи (как мы помним в то время в Китае правила «исконно китайская» династия Мин, свергшая монгольскую династию) Ляодун. В 1636 г. сын Нурхацци, Абахай, переименовал Позднюю Цзинь в Цин, а чжурчженей – в маньчжуров. Сделал он это потому, что «племена маньчжоу, хада, ула, ехэ и хойха подлежат считать еди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 Маньчжоу, и что невежественные люди их называют чжушэнями, но название чжушэнь относилось только к потомкам чаоморгеньских сибэ». Хотя скорее всег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н легитимизировал свою влас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чжурчженских племен, поскольку Маньчжоу – это название клана его и его отца.

Абахай подчинил себе северную часть Маньчжурии, покорил зависимые от Китая монгольские княжества: Хорчин, Найман, Аохан, распространил своё влияние на земли чахаров, совершил удачный поход на Корею и предпринял смелый набег на Пекин, через Харахотунь и проход Сыфынь-коу в Великой стене. Китайской армии был нанесен чувствительный урон, и Абахай осадил столицу. Однако, опасаясь за свой тыл, он был вынужден снять осаду и возвратиться в Маньчжурию. После этого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он посылал сильные конные отряды, которые проникают вглубь Китая через проходы в Великой стене: Губейкоу, Душикоу, Нанькоу (Цзюйюн-гуань), Гуйхоу-чэнь и др. Сильные отряды доходили даже до Цзинаньфу и Янь-чжоу-ву.

Поход маньчжуров на Китай в 1627 году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самого Абахая не дал ощутимых результатов. Поскольку Корея, как вассал Китая, всячески поддерживала династию Мин, маньчжуры вторглись в эту страну, начались массовые убийства и грабежи. Корейский ван был вынужден уступить силе, заключить мир с Маньчжоу, уплатить ему дань и наладить торговлю с победителями.

В связи с укреплением китайской обороны, для завоевания северного Китая нужно было обойти район Ляоси (часть Ляонина к западу от реки Ляо), а это было возможно только через южную Монголию. Абахай привлек на свою сторону многих монгольских правителей и поддержал их в борьбе против Лигдэнхана – правителя Чахара, пытавшегося восстановить империю Чингис-хана. В обмен на это Абахай обязал монгольских правителей участвовать в войне против Китая. Уже в 1629 году конница Абахая обошла крепости Ляоси с запада, прорвалась через Великую стену и оказалась у стен Пекина, где началась паника. С богатой добычей маньчжуры ушли назад. Однако окончательное завоевание Китая маньчжурами произошло только при сыне Абахая – императоре Шуньчжи.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е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оргового дел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ЖК "Грин Палас Мира 300"

30 июня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заверш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оргового делового центра в жилом комплексе «Грин – Палас Мира 300».

Это событие собрались отмети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рои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нвесторы, дольщик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жители города.

Группа компаний «Грин палас» на строительном рынке уже 11 лет. За эти годы реализован ряд крупных комплексных проектов (ЖК Грин Палас на Емельянова, офисный комплекс Грин Палас Люкс н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м проспекте).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заверши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ервой очереди ЖК «Грин Палас Мира 300», были сданы три многоэтажных дома. И вот во дворе этого комплекса согласно проекту был возведен торговый деловой цен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одобного центра – первый опыт для людей, занимавшихся возведением жилых домов и офисов.

После того, как торжественно была перерезана ленточка,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устремились по этажам новостройки для ознакомления. А затем состоялась сама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на которых гостей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руководство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Грин Палас, «Сахинстрой», инвесторы и строители.



Как объяснил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Сахинстрой» Квон Ун Хо, здание центра, включая цокольный этаж, состоит из 5-ти этажей. На цокольной расположится крупный супермаркет, пройти в который можно будет также сразу через подземную парковку. Первый и второй этажи заселят магазинчики, бутики, салоны. Третий этаж – это зона фудкорта. А на четвертом расположатся офисные помещения, а также ресторан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Пак Дэ Гам-2». Квон также сообщил, что 98% площадей торгового делового центра Грин Палас уже выкуплена.

Открытие центра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ле «вселения» в центр всех торговых точек,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ов.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в ноябре месяце.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

8 июля - день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СЕМЬЯ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ЩЕСТВЕ

«Семейная любовь — самое важное и самое

благотворное из всех добрых чувств человека».

Н. Г. Чернышевский.

Все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аньше понятие «семья» значило гораздо больше, чем сейчас. Семья для людей имела большую ценность, прочно ассоциировалась с терпением, уважением к ближнему. К созданию семьи, к вступлению в брак и к появлению детей люди относились более обдуманно.

В нашем же,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понятие «семья» существенно обесценилось. Немалая доля браков заключается из-за мимолетного чувства, ошибочно принимаемого за любовь, но это заблуждение вскоре рассеивается и за ним неизбежно следует разочарование в новоиспеченном партнере, а затем и развод, как следствие не до конца обдуманных решений. Этот цикл может повторяться раз за разом, навсегда исключая из самого понятия «семья» такое качество, как долговечность.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процент разводов во всем мире, высок как никогда.

Но даже если у мужчины и женщины получается создать брак, который не разваливается из-за обманутых ожиданий, о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 его таким понятием как «на всю жизнь» очень сложно, ведь все в нашей жизни со временем меняется (не всегда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и приоритеты людей тоже. У общества появились новые идолы, такие как карьера, деньги. Женщины, заручившись идеями феминизма, охотнее бегут по карьерным лестницам, пытаясь доказать свою значимость мужской части общества,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создавать крепкие семьи и воспитывать детей. Они не понимают, что как раз в их хрупких руках лежит будущее, ведь как сказал русский историк Евгений Спицын: «Хочешь завоевать страну – воспитай её детей».

Не меньший вклад в деморализацию понятия «семья» вложили и мужчины, бездумно бросающие свои семьи ради более

доступного, более выгодного варианта. Ни о каком терпении и уважении к супругу здесь не может быть и речи. Движимые эгоизмом, выйдя из семьи, они не считают нужным воспитывать своих детей, порой думая, что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будет более чем достаточно, а иногда и одной не оказывая. Они заводят новые семьи, тут и там плодя социальное неблагополучие, а одинокие женщины с детьми – матери-одиночки – уже совершенно нормальное явление для нашего общества.

Изменения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далеко не всегда идут во благо. Понятие «семьи» подвержено регрессу, во всем мире царит так называемый «кризис семьи и брака», но мне хочется верить в то, что мы можем этому воспрепятствовать, и что мы все еще можем создавать крепкие семьи, укрепляя наше будущее.

МИРА КИМ,
студент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колледжа СахГУ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ч. 7 ст. 41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ведомляет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бесплатной и 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 кандидатам и политическим партиям,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вшим список кандидатов,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редвыборной агитации кандидатов на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седьмого созыва.

Наименование СМИ: «Сэ коре синмун(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1. Общий объем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бес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составит: в пятницу – 1 полоса формата А3, кроме первой полосы, 954 кв. см.

2. Общий объем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составит: в пятницу - 1 полоса формата А3, кроме первой полосы, 954 кв. см.

Общий объем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бес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в агитационный период составляет 3816 квадратных сантиметров. Общий объем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в агитационный период составляет 3816 квадратных сантиметров.

Стоимость 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в валюте РФ) размещения предвыборных агитацио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составляет 70 руб. 1 кв.см.

Оплата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по безналичной форм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завершил визит в США и вернулся на родину

2 июля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вернулся на родину, завершив пятидневный визит в США. По прибытии в Сеул он заявил, что визит позволил восполнить «пустоту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РК», продолжавшуюся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а также укрепить поз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По его словам, благодаря прошедшему визиту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был создан канал для диалога, в основе которого – доверите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с американским президентом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Он также заявил, что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главой Белого дома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совместных усилиях для мир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Вашингтон поддержал усилия Сеула в да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отметил Мун Чжэ Ин.

Иностранные учёные обсуждают в Сеуле проблему воссоединения Кореи

С 3 по 12 июл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роходит мероприятие под названием «Академия воссоединения с участием зарубежных учёных». Для участия в нем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19 видных учёных из 12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из США, России, Китая,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Швеции, Японии. Они выступят с докладами и проведут открытые обсуждения на эту тему. 7 июля в Сеуле пройдёт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вопросу мирного воссоединения Кореи. Нынешнее мероприятие впервые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 2013 году с целью повышения понимания мировым сообществом проблемы воссоединения Юга и Севера.

МИД России: Москва озабочена ситуацией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осква «очень озабочена тем,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 ситуации, которая не имеет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решения уже долгое время». Об этом заявил зам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ергей Рябков в интервью газете «Известия». Он отметил, чт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соседство с КНДР -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факторов внимания России к этой проблеме». При наличии политической воли со стороны США можно многого добиться совместно, подчеркнул российский дипломат. Он предложил «заморозить ситуацию, добиться некоего статус-кво, а дальше двигаться по методологии поэтапного снижения напряжённости и наращивания динамики в поиске политических развязок». По словам Александра Рябкова, «нажим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может сдетонировать в столкновение. Это было бы катастрофой для столь значимого для всех региона».

Сеул примет Национальную конвенцию по вопрос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мерена принять так называемую Национальную конвенцию по вопрос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Он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программу действий по воссоединению Юга и Севера, которая должна оставаться неизменной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мены власти. Для этого в рамках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создаётся новый совещательный орган. В его состав должны вой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авящей и оппозиционных партий,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частные эксперты. До сих пор каждый новый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овозглашал собственную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политику.

В Ташкенте установлен памятник в честь 80-летия массов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Узбекистан

В Сеульском парке в Ташкенте установлен памятник в честь 80-летия массов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Узбекистан. Церемония состоялась 3 июля.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100 человек. Среди них мэр Сеула Пак Вон Сун, мэр Ташкента Рахмонбек Усманов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Узбекистана Виктор Пак. На памятнике на русском, корейском и узбекском языках высечена надпись. В ней выражаетс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узбекскому народу за доброту, с которой были приняты корейцы. Памятник был построен Сеульской мэрией по запросу ташкент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проект в 2014 году было выделено примерно 2,2 млн долларов. (RKI)



МИГРАЦИЯ ИЛИ РЕПАТРИАЦИЯ В ЮЖНУЮ КОРЕЮ

Южная Корея, совершившая в последней трети прошлого век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чудо, превратилась на рубеже веков из страны-донор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миграции в страну-реципиента иммигрантов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мира. Репатриац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как разновидность международной миграции, имеет бесспорные специф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хотя бы потому, что по соседству есть другое государство – КНДР, которая также вовлечена в трансграничное перемещение населения. Исходя из растущего числа мигрантов, в том числе чосончжок из Китая, корейцев (корёин) из стран СНГ, прежде всего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и России, беженцев-тхальбукжа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братной миграци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з США и западных стран, на повестку дня встают вопросы правов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о репатриации и эффективной программы интеграци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Репатрианты могут оказать влияние на стабильность и развитие Южной Кореи в 21-ом веке. Исследование основных этапов репатриации, ее составляющих элементов, возникших проблем в адаптации репатриантов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редполагает знание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пыта приема мигрантов,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репатриации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В очерке даю краткий сравнительный обзор репатриаци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Многие государства, имеющие численно значимые группы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иняли законы о репатриации. Они разные. Одни страны объявили по праву крови своими гражданами все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езависимо от страны проживания. Так поступили Израиль, Венгрия, ряд европ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Израиль является страной с самым богатым опытом и самой разработанной процедурой в сфере репатриации. Суть репатриации заключается в упрощенной процедуре передачи гражданства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ранее покинувшим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Но в Израиле репатриация понимается в более широком смысле, охватывая не только возвращение в страну, но и последующую интеграцию вернувшихся на родину евреев и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Вопреки стереотипному представлению, что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был страной за стальным занавесом, в его истории имело место масштабная репатриация армян в Армянскую ССР.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1946 г. совет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приняла около 51 тыс. армян из Сирии, Греции, Ливана, Ирана, Болгарии и Румынии, в следующем 1947 г. - 35,4 тыс. репатриантов из Палестины, Сирии, Франции, США, Греции, Египта, Ирака, Ливана.

В 1948 г.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возвратилось еще около 1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итоге за 1946-1948 гг. в Армению репатриировались около 100 тысяч армян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мира.

В Конституциях и Законах о гражданстве таких стран как Республика Армения, Республика Беларусь, Болгария,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Венгрия, Ирландия, Исп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Кипра, Республики Кыргызстан, Китайская Народная Республики, Либерии, Норвегии, Польш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умынии, Сербия, Тайвань, Финляндии, Хорватии, Чехии, предусмотрена упрощенная процедура натурализации репатриантами.

Растущий приток мигрантов в Южную Корею включал в себя не только трудовую иммиграцию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но и репатриацию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 Китая, России, Узбекистана, Кыргызстана, Японии и т.д.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нет отде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репатриации, однако, ряд других законов содержат правовое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дл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ибывающих в страну. Общее руководство деятельностью в области гражданств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Кореи, а основным органом, отвечающим за практическую сторону организации и координирования процесса, связанного с корейским гражданством, является подведомственная министерству юстиции М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Кореи.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нятый 13 декабря 1997 г., является главным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м документом, которым регулируются отнош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корейским гражданством, определены основания, условия и порядок его приобретени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 прекращения. 4 мая 2010 года были внесены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е наличие двой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для определённой категории лиц, начиная с 1 января 2011 год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ействующей редакцией «Закона о гражданстве» существует два вида натурализации: обычная и специальная. Первая - обычная натурализация применяется в отношении рядовых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Специальная натурализация применяется в отношении лиц, имеющих особые заслуги перед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ключая их прямых предков и потомков), и вносящих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траны, обеспеч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защиту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Южной Кореи.

Наиболее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группой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ействующим Законом о гражданстве могут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не выходя из своего, являются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за рубежом,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надлежащее разрешение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Эта процедура определена законом, как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в гражданстве, также подразумевает отказ от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я себя как иностранц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вправе отказать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возможности восстановить гражданство, если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роведённой проверки кандидата выяснится, что он причинял вред государству и обществу, нарушал общественный порядок и лишился, либо отказался в своё время от корей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в целях уклонения от прохождения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Молодые люди призывного возраста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в качестве второго только после службы в армии.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допускает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для лиц, родивших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которые были усыновлены иностранцами и впоследствии приобрели иностран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до достижения совершеннолетия по корейскому закону (19 лет). Кроме того, всеми привилегиями двой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мог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зарубеж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кл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от 65 лет, переехавшие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Южной Корее существуют два основных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а, регулирующих отнош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с диаспорой: «Закон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1963) и «Закон о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х» (1988).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без каких-либо ограничений, проводить финансовые операции и приобретать недвижимость в стране, а также получать специальные визы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значительно облегчающие процес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в РК.

С марта 2007 года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вело новые правила въезда и пребывания в стране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 стран СНГ и Китая. С этого момента у них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ать гостевые рабочие визы H-2,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им свободно въезжать в РК и выезжать из нее в течение 5 лет, а также работать в стране на протяжении 3 лет.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Ким Герман Николаевич,
д.и.н., профессор,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истор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гук (Сеул),



На Сахалине возрождают традиционные промыслы коренных этносов

Развитие оленеводства и морского зверобойного промысла, факторий, этнотуризма и народных ремесел - это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новой област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и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К ее разработке приступ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Цель - стимулировать эконом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среде коренных северян, оказать им помощь в решении первоочередных пробле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ходе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комите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России по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и проблемам Севера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ыездное совещан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кануне провел глава дум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Николай Харитонов. Его участники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традиционного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я северян.

- Мы проводим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 Сахалине, так как именно мнение регионов имеет определяющее значение в этой работе, - сказал во вступительном слове Николай Харитонов. - Сейчас в нашей стране формируется новая модель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сенью ее представят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езидиума Госсовета. Считаю, что при дальнейшем промышленном освоении этой обширной территории должны быть учтены интересы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которые проживают здесь в течение многих веков.

По закону северянам отдано приоритетное право пользования различными природными ресурсами. Однако на практике в этом возникает немало сложностей. Причина - несовершенная правовая база. Основные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в данной сфере устарели - они принимались более двух десятилетий назад. Кроме того, их дополнили различными бюрократическими нововведениями, которые только усугубляют ситуацию.

Из-за этого в текущем году, например,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в ряде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едва не остались без рыбы. Затруднения вызвал введенный заявочный принцип - в силу разных причин общины не смогли вовремя подать документы.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одна из главных целей новой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и коренных северян Сахалина. На острове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созданию факторий. Они будут перерабатывать рыбу, ягоды, грибы и другие дикоросы - продукцию традиционной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Это начинание получит бюджетные субсидии.

Возродить на Сахалине планируют и некогда мощное оленеводство. В былые годы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стада этих животных составляла до 35 тысяч голов. Сегодня - всего около 200.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нового племенного ядра в 2016 году в область из Якутии доставили первую партию северных оленей. Они пополнили хозяйство общины «Юктэ»,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в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принят регион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леневодстве. Это позволит ввести таки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как: выплата субсидий на возмещение затрат по содержанию оленей, на борьбу с хищниками, завоз маточного поголовья, выделение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эт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особом порядке.

Кроме того, власти рассчитывают принять и еще один нормативный акт - о признании общин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Новый статус откроет для них возможности в получе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омощи от государства - такая практика уже существует в Якутии. А на Сахалине льготы получили обладател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ектаров» из числа коренных северян.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м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 лизинг с удешевлением до 70 процентов. Всем пользователям «гектаров» также выделяются гранты -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семе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минеральных удобрений, известняковой муки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животных. В дальнейшем власти планируют увеличить размер такой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мощи и расширить области ее применения. В частности, деньги можно будет направить на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а.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гости острова смогут посетить первый этнокультурный комплекс. Его возводят в рамках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Горный воздух».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построены нивхское летнее жилище «Ке-раф» и эвенкийское жилище «Чу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также находится этнотропа и этнотир). К этим

объектам добавятся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музей, конференц-зал и мастерские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сувенирной продукции.

В дальнейшем подобные центры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должны появиться и в сахалинских районах, где проживают коренные северяне.

- Стратегия государства сегодня направлена на принятие мер по ускоренному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десь важно, чтобы коренные народы не остались в стороне от данной работы. Отрадно,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формируются такие планы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которые учитывают и интересы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Лиманзо,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юза общин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итогам «круглого стола» решено объединить все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которые регулируют вопросы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я коренными северянами, в единый кодекс. Эту рекомендацию вынесут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Сове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РФ. Направлена она на решение главной задачи -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На Сахалине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уже достигнуты важные результаты. Намечалась тенденция к повышению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нных этносов. В их среде растут уровень рождаемости и средня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по делам инвалидов и ветеранов состоялось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уководители ряда министерст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ел совещание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члены совета уделили вопросам развития адаптивной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обсудили ход работ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доступности для инвалидов объектов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ак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регио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почти двадцать четыре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физическ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из них около двух тысяч детей. При этом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занимаются чуть больше двух тысяч жителей такой категории.

-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ая работа с лицам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ведется в 67 учреждениях. Для популяризации спорта среди таких сахалинцев проводятся областные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а также выез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Каждый год спортсмены област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партакиадах инвалидов. Органы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также проводят агитационную работу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х к регулярным занятиям спортом. На существующих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ах проводится системная работа по их адаптации, путем установки пандусов и кнопок вызова персонала,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В тоже время,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в области все еще есть проблемы развития адаптивной физ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такие как: низкий уровень обеспеченности спортивными сооружениями для занятий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физическ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недоста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пециалистов, осуществляющих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адаптивная физкультура и спорт».

Актуальным остается вопрос повыш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для инвалидов объектов социальной, инженер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условий для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услугам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Для решения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доступности более двухсот объектов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Будут приобретены тр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автобуса в Томаринский, Поронайский и Холмский районы.

- У нас много людей, которые в силу различ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обособлены от общества и не задействованы в экономике области, испытывают одиночество и боль. Вместе с тем среди этой категории граждан есть много талантливых и способны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по медицинским показаниям могут и желают трудиться. И наша задача помочь им интегрироваться в общество, - подчеркнул, подводя итоги обсуждения,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Объявлен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этап конкурса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грант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ель мероприятия - поддержка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ез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активных граждан области и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овлечение их в реализацию программ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торы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нимают заявки от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в установленном законом порядке и осуществля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воими учредительн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едусмотренную статьей 31.1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ях» и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стигших восемнадцати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ограниченных в дееспособности или признанных недееспособными в установленно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порядке.

Конкурсный отбор проводится по следующим приорит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 профилактика социального сиротства, поддержка семьи, материнства и детства;
-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людей пожилого возраста;
- социальная адаптация инвалидов и их семей;
- укреплен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жэтнических и межконфесс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профилактика экстремизма и ксенофобии;
- развит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самобытности, культуры, языков, традиц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поддержка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подготовке населения к преодолению последствий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экологических, техногенных или иных катастроф,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 профилактика социально опасных форм поведения граждан;

-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свещения, науки, культуры, искусства, содействия духовному развитию личности;
-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обла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офилактики и охраны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 пропаганды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улучшения мор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граждан,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и содействия указа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по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в том числе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граждан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личности,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области содействи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и и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 охран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экологический туризм;
-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по развитию социальной актив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и институ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е молодеж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определяет конкурсная комиссия на основании следующих критериев:

- правильность и полнота оформления конкурсной заявки;
- соответствие проекта целям и задачам конкурса;
- актуальность и высокая значимость со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 долговременность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эффекта от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ь и обоснован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редств гранта;
- соответствие заявленного проекта опыту работы, ресурсам и уста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 степень проработанности проекта, его составных частей: целей, задач, форм и методов, реалистичности бюджета, календарного плана и ожидаемых результатов;
- реалистичность сроков выполнения и достижения результатов.

Размер гранта зависит от объема планируем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проекту. Он не может превышать 500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е необходимо в срок до 27 июля 2017 года направить заявочные документы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образца в управление по развитию институ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заявочные документы размещены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явка должна предусматривать привлечение заявителем средств из других источников или личный вклад организации в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в размере не менее 10 процентов от общей суммы проекта.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определяют до 10 августа 2017 года. Начал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проектов - с 20 августа. До 1 декабря 2017 года грантополучатели должны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проекты и под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отчеты.

За справками следует обращаться в управление по развитию институ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адресу: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32, оф. 327. Телефон: (4242) 670-297, факс: 469354.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e.ulyanova@sakhalin.gov.ru. Секретарь конкурсной комиссии - Еле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Ульянова. Консультации проводятс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пис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16차 세계한상대회", 사전등록하세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서 개최

9월 3일까지 사전 등록 시 참가비 할인 등 혜택 제공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리는 제16차 세계한상대회의 사전등록이 진행 중이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은 올해 대회의 슬로건을 "더 나은 한상,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확정하고, 9월 3일까지 참가자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전 신청은 대회 등록 사이트 (www.hansang.net 또는 hansang.korean.net)에서 가능하고, 사전 등록 신청자는 참가비 할인 및 개회식 참석이 가능하다.

올해 한상대회는 기업전시회를 비롯해 일대일비즈니스미팅, 한상 리더십 컨퍼런스,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한상&청년 Go Together!, 한상 비즈니스 플랫폼, 밉글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첨단 부품·소재산업의 중심지인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만큼 창원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활동도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4차 대회부터 시작된 청년 해외 진출 프로그램(한상&청년 Go Together!)은 전일로 확대하여 참여기업과 인턴 채용 규모를 늘리는 등 국내 청년들의 해외진출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철기 이사장은 "한상대회는 국내외 동포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축제의 장"이라며, "국내외에서 3천 5백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 내외동포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전등록 신청 문의: 세계한상대회 사무국 02-2-3415-0052/ 0150.

(재외동포재단)

[우리말로 깨달다]

안 씻는 것도 문화다

우리는 문화를 판단한다. 문화는 판단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문화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좋은 문화와 덜 좋은 문화는 모두 내 관점에서 시작된다.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다른 문화에서 보면 우리 문화는 늘 낯설고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말은 나쁜다는 말이 아니다. 낯설다는 말 역시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다르다는 말을 이상하다든지 낯설다고 표현한 것이다.

한동안 우리는 씻는 문제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아 왔다. 예전에 일본인들은 한국인은 씻지 않는 민족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안 씻는 게 지저분해 보이고 더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안 씻는 것도 문화다. 우리도 한동안 중국인을 안 씻는다고 무시하기도 했다. 물론 중국이 워낙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언급 자체도 정확성이 떨어진다. 아마 중국의 어떤 지역은 덜 씻지만 어떤 지역은 아주 자주 씻는 것이다.

안 씻는 것에도 이유가 있고, 씻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 어떤 학자들은 아예 과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씻는 것을 반대한다. 예를 들어서 이빨을 자주 닦으면 이빨의 에나멜이 벗겨져서 이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아이들은 이런 주장을 잘 습득하여 부모께 써 먹는다. 이빨 닦고 자라는 부모의 말씀에 과학적인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으이그 소리가 절로 나온다.

이미 많이 들은 이야기겠지만 몸의 때를 벗기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피부에 좋지 않다는 의견 때문에 때밀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때를 밀지 않으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씻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생각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피부를 자연의 상태로 두어야 건강하다고 믿는 경우도 있었다.

향수가 발달한 민족의 경우에 덜 씻는 민족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이 많다는 보고(피터 콜릿, 습관을 알면 문화가 보인다)는 향수 사용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하게 한다. 몸 냄새를 숨기려는 태도라는 것이다. 하긴 어떻게 보면 자주 씻는다면 향수가 덜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깨끗이 씻고 난 자신의 고유한 향기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안 씻는 문화의 민족은 주로 춥고 건조한 기후라는 공통점이 있다. 습하지 않으니 씻는 일이 줄어들 수 있겠다. 반대로 덥고, 습하고 비가 많은 기후라면 안 씻기 어려울 것이다. 당연히 자주 씻을 수밖에 없다.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겨울보다는 여름에 훨씬 많이 씻을 것으로 판단된다. 춥고, 건조한 겨울보다는 덥고 습한 여름에 훨씬 많이 씻을 수밖에 없다. 물이 귀한 곳인가의 여부도 씻는 문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물이 귀한데 샤워를 돌아가면서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씻더라도 손이나 발 정도만 씻는 문화일 수밖에 없다.

문화적으로 보자면 신체 접촉이 많은 문화인지도 씻는 습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는 인사 문화에서 안 씻는 것은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다. 악수를 많이 하는 문화라면 당연히 손을 자주 씻어야 할 것이고, 포옹을 하는 문화라면 자주 목욕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향수라도 뿌려야 할 것이다. 입맞춤을 자주하는 문화라면 양치의 생활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식사 문화도 씻는 문화에 영향을 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으로 먹는 문화인가, 숟가락이나 젓가락, 포크 등을 사용하는 문화인가의 차이점이다. 손으로 먹는 문화인데 손을 안 씻고 식사하는 게 가능할까? 당연히 식사 전이나 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한다. 주로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일은 거추장스럽게 생각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씹을 먹을 때는 손을 씻지 않고 먹기를 힘들었을 것이다.

씻는 것도 안 씻는 것도 문화다.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나와 다른 수많은 외국인을 만나게 되고, 인사 방법이 바뀌고, 황사에 미세먼지에 오염된 세상에서 산다면 자신을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씻는 게 좋을 것이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2

한국 소설을 읽으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전호의 계속)

- 이 글은 소설의 구성 단계상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 1) 전개
 - 2) 갈등
 - 3) 위기
 - 4) 결말
- 이 소설의 시점은?
-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을 찾아 쓰시오.
- 소년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소년이 들은 소문은 무엇입니까?
- (나)의 글에서 생략된 말을 써 보세요.
- 윤 초시의 증손녀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제 학습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 '-(ㄴ/는)다'고 하더라도, -(ㄴ/는)다 하면 하나 같이 -다(고)해도, -다(고)해서, -(ㄴ/는)다(고) 할지라도'를 사용하여 각 문장을 두 개씩 만드세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쓰세요. (필)

Урок 23

한국 고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했지요?

대화 Диалог

이리나: 한국 고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했지요? 저도 요즘 고전 소설 중에서 판소리게 소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흥이 나더라고요.

안드레이: 19세기 무렵 나타나기 시작한 판소리게 소설은 한국 고전 문학사의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판소리게 소설은 평민 계층의 문화와 정신을 투영하고 있지요.

이리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안드레이: 이전 소설이 판넬적이었던 것에 비해, 판소리게 소설은 현실적인 경험을 생동감있게 표현하고 있지요. 해학과 풍자를 기본으로 하는 평민 계층의 문화의 역동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답니다.

이리나: 판소리게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드레이: 춘향가, 수궁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등이 있어요.

이리나: 아니, 언제 이렇게 판소리 소설 전문가가 되었어요?

안드레이: 저는 오래 전부터 한국 고전 문학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새로 나온 단어 новые слова

고전- классика; 판소리-пхан소리 (классическая народная песня, исполняемая солистом под звуки барабана); 평민-человек из народа, простолюдин; 투영하다-отражать; 관념-идея, концепция; 생동감-живое чувство; 해학-юмор, шутка; 풍자-сатира; 역동성-энергичный характер.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